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0. 15.(목) 21:00
(지면) 2026. 10. 16.(금) 조간
배포 2026. 10. 15.(목) 06:00

40년간 바다 지킨 'K-해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여성 인재 100인에 선정

- '2026년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 맞아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전 세계 여성 리더 발굴
- 성정희 구룡포 어촌계장,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성정희 구룡포 어촌계장(경북해녀협회 회장)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선정한 '농수산식품 시스템 및 농어촌 개발 분야 여성 인재 100인'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인 FAO는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여성농어업인의 해'를 계기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온 여성들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활동을 알리기 위해 이번 '여성 인재 100인'을 선정하였다.

이번 여성 인재 100인에는 농어업인을 비롯해 지역사회 지도자, 과학자, 기업가,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 농수산식품 시스템 전반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FAO 회원국 중 약 600명이 추천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0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성정희 계장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성 계장은 약 40년간 해녀로 활동해 온 여성 어업인이자 어촌 공동체의 리더로, 현재 구룡포 어촌계장과 경북해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기간 해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료 해녀들의 복지 증진과 작업 여건 개선에 힘쓰고, 여성 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널리 알려왔다.

해양수산부 서진희 국제협력정책관은 "해녀는 바다를 이용하면서도 그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며 바다를 지켜온 생태 친화적 해양 관리자다."라며, "40여 년간 현장을 지켜온 우리 해녀의 전통 지식과 리더십이 UN과 FAO 등 국제 사회에서 높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해녀어업 유산을 보전·발전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51-773-5330)
		담당자	사무관	정혜정 (051-773-53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